

	보 도 자 료			
	보도	2018. 2. 7(수) 14시	배포	2018. 2. 7(수)
담당부서	경영지원본부 전략기획부	문의	양태영 부장 (02-3774-4160) 송기명 팀장 (02-3774-9315)	

제 목 : 정지원 이사장, 「2018년 한국거래소 운영방향」 발표

- 한국거래소 정지원 이사장은 '18.2.7(수)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「자본시장의 혁신성장을 위한 2018년 한국거래소 운영방향」을 발표하고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음

<붙임> 자본시장의 혁신성장을 위한 2018년 한국거래소 운영방향

【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】

자본시장의 혁신성장을 위한
2018년 한국거래소 운영방향

2018. 2

 한국거래소

I 취임 100日 소회

- ◆ 국가경제와 자본시장에서 거래소의 중요성을 실감한 시간
- ◆ 혁신성장을 주도하기 위한 거래소 역할 변화 필요

- **(거래소의 중요성 실감)** 자본시장은 '56년 증시개설 이후 60여 년간 기업의 자금조달과 국민의 재산증식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
 - 이사장 취임 이후 지난 3개월은 국가 경제와 자본시장에서 거래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시간
- **(거래소의 역할 변화)** 변화와 혁신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거래소의 역할도 혁신성장의 핵심 축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
 - 특히, 우리 경제 재도약의 첨병인 벤처·혁신기업을 대상으로 충분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
 -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함으로써 시장참여자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것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제

II 최근 자본시장 동향 및 전망

1 주식시장 동향

- ◆ 코스닥지수는 연초에는 정책 기대감 등으로 약 16년만에 최고치(927p, 1/29)를 기록하였으나, 최근 미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투자심리 위축으로 850선까지 하락
 - 코스피도 연초 2,600선 근접 후 美 긴축우려 및 안전선호 등으로 동반하락(2,450선)
- **(주가지수)** 코스피와 코스닥은 국내외 경기 및 기업실적 개선세와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연초에 강세를 보였으나, 최근 美 금리급등과 안전선호로 조정장세 진입

구 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
				1.29	2.6
코스피(p)	1,961.3	2,026.5	2,467.5	2,598.19	2,453.31
코스닥(p)	682.4	631.4	798.4	927.05	858.17

- **(시가총액)** 시가총액은 지난 1월 중 사상 최대치인 **1,994조원**을 기록한 이후, 최근 증시하락으로 전년말 대비 **12조원** 증가한 **1,901조원** 시현
 * 시가총액(KOSPI+KOSDAQ, 조원): 1,510('16년말) → 1,889('17년말) → **1,901('18.2월)**
- **(거래)** 거래대금(일평균)은 '17년 **9조원**대를 회복한 후 코스닥 거래 급증과 변동성 확대 등으로 '18년 들어 **15.9조원**으로 증가
 * 日거래(조원): **9.1('11)**→ 7.0('12)→ 5.8('13)→ 6.0('14)→ 8.9('15)→ 7.9('16)→ **9.0('17)**(코스피 5.3, 코스닥 3.7) → **15.9('18.2)**(코스피 7.3, 코스닥 8.6)
- **(IPO)** 코스피 대형주(넷마블게임즈, 아이엔지생명 등) 상장과 코스닥 혁신기업(헬스케어, 바이오 등) 상장 러시에 따라 **100사**가 신규 상장하여 '05년 통합 이후 최대치를 기록
 * 신규상장(社): 88('10)→ 86('11)→ 37('12)→ 46('13)→ 55('14)→ 96('15)→ 87('16)→ **100('17)**(코스닥 **79**, 코스피 **21**) (재상장 포함, SPAC 제외)

2 파생상품시장 동향

- ◆ '17년 증시상승과 함께, 코스피200상품 승수인하, 기관마케팅 강화 등에 힘입어 주식파생시장이 활력을 회복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대금도 증가
- **(주식파생시장)** '17년 주식파생 거래대금은 **20조원**(일평균)으로 전년 대비 **+5%**, 미결제약정도 **590만계약**으로 **+26%** 증가
 * 특히, 코스피200상품 이외에 개별주식선물(1.1조원, +65%) 및 코스닥150선물(1,500억원, 150%)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
- **(장외파생 위험관리 강화)** 원화이자율스왑(IRS) 청산대금이 **611조원**으로 전년 대비 **+29%** 증가
 * 청산대금(조원) : 212.7('14) → 382.6('15) → 473.5('16) → **611('17)**(+28.9%)

3 '18년 자본시장 전망

◆ **신흥국 주도의 세계경제 개선세*의 영향으로 상장법인의 이익이 증가**하고, 주주가치 제고,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증시 상승 전망**

* '18년 경제성장률 전망 : (IMF) 세계 3.9%, 한국 3.0% (한은) 세계 3.7%, 한국 3.0%

** '18년 영업이익 증가율(예상) : 코스닥 43.7%, 코스피 15%(출처:FnGuide)

◆ **다만, 장기간 유동성 확장으로 금융자산이 증가함에 따라, 경기과열에 따른 대내외 긴축적 통화정책 시행시 상승폭 축소 및 변동성 확대 가능성 상존**

□ **(코스닥) 실적, 정책, 수급 등 3대 모멘텀에 따라 재평가 전망**

○ 국내 증권사는 기업실적 증가, 코스닥 중심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중소형주펀드 자금 유입 등에 따른 수급개선 확대로 재평가 전망

○ 신규상장도 증시 상승 및 상장요건 개선 등에 따라 '17년(79社) 보다 증가한 100社* 이상 상장 예상

* SPAC 포함시 120社 이상 상장 예상

□ **(코스피) 안정적인 이익증가 및 주주가치 개선 등으로 상승세**

○ 양호한 기업실적과 스튜어드십 코드 확산 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로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보일 전망

○ 신규상장도 그룹 계열사의 대규모 IPO(SK루브리컨츠, 현대오일뱅크 등)에 힘입어 '17년(21社) 보다 증가한 30社(재상장 포함) 이상 상장 예상

□ **(주식파생) 증시 변동성 확대*에 따른 헤지거래 등 위험관리 수요 증가로 주식파생 거래는 전년도 수준** 이상의 증가 예상**

* '17년 지수변동성(10%)이 최근 5년('13~'17년)內 최저치 기록 → 향후 확대 예상

** '17년 주식파생 거래대금 증가율 : +5.4%

○ 현물시장 거래증가·변동성 확대, 신상품상장(KRX300·KTOP30선물) 등 긍정적인 환경 존재

4 금융시장 불안 발생시 대응방안

- **(안정적 시장운영 주력)**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안정적 시장운영 및 투자심리 안정에 주력
 - 사이드카, 서킷브레이커 등 변동성 완화 장치를 통해 외부 충격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시장운영에 주력
 - 국내외 시장동향 및 자금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, 시장 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및 불공정거래 예방 강화
- **(금융당국과 협업 강화)** 금융당국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시장 안정화에 만전

1 [코스닥] 모험자본 조달의 산실로 재도약

- (1) 코스닥 지배구조 개편을 조기에 완료
- (2) 성장잠재력이 있는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
- (3) 코스닥시장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- (4)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
- (5) 코스닥 조직 확충 및 우수인력 배치

2 [유가] 글로벌 선진 자본시장으로 업그레이드

- (1) 시가단일가매매 개편 추진
- (2) 글로벌 경쟁우위의 선진 증시 인프라 구축
- (3)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투자매력도 제고

3 [파생] 건전한 위험관리시장으로 육성

- (1) 신상품 라인업 확충 및 시장 접근성 제고
- (2) 위험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확충

4 [시장감시]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성 제고

- (1)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체계 강화
- (2) 사전예방 중심 시장감시기능 확립

5 [신성장동력] 지속 가능 성장기반 구축

- (1)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
- (2) 미래 新기술의 자본시장 적용 선도

1 [코스닥] 모험자본 조달의 산실로 재도약

(1) 코스닥 지배구조 개편을 조기에 완료

- **(코스닥시장위원회 확대·개편)** 정부가 발표('18.1.11)한 “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”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
 - 코스닥시장위원장과 본부장 분리 등을 위한 정관개정이 현재 진행 중(2.5, 주총승인)으로 2월 중 금융위 승인 예정
 - 금융위 승인을 통해 정관 개정이 완료되면 코스닥시장위원회 추천을 거쳐 위원장과 본부장 선임은 3월 중 마무리 예정
 - 새롭게 추가되는 코스닥시장위원도 코넥스협회 및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추천(각 1인)을 받아 3월 중 선임 예정
 -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상장 및 폐지 권한 강화는 코스닥시장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후 즉시 시행 계획

(2) 성장잠재력이 있는 혁신기업의 상장 촉진

- **(진입요건 개선)** 실적 중심에서 성장잠재력(시가총액, 자기자본 등) 중심으로 진입요건 전면 개편*을 조기 완료(4~5월)
 - * 혁신기업 진입을 제한하는 “계속사업이익이 있을 것”, “자본잠식이 없을 것” 요건 삭제 등 상장요건을 개선
 - 상장기업 업종별 특성 등을 반영한 상장심사방안도 마련
- ⇒ IT, 의약·바이오, 금융, S/W, 정보서비스 분야 약 2,800사가 추가로 상장요건 충족
- **(코넥스 이전상장 촉진)** 성장성 요건*을 이전상장 요건에 추가하여 코넥스기업의 코스닥 이전상장 활성화(4~5월)
 - * 매출증가율 20% & 매출액 200억원 이상 & 영업이익 10억원 이상
- ⇒ 신속이전상장 요건 충족기업 증가(18사 → 22사) 예상

(3) 코스닥시장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 강화

- **(코스닥 新벤치마크지수 출시)** 기관투자자 및 해외투자자의 코스닥 투자 촉진을 위해 KRX300(2.5 발표) 등 신규 벤치마크지수 개발
 - KRX300지수는 유가·코스닥시장의 우량기업 300종목을 선정하여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벤치마크지수*로 개발
 - * 코스피200지수보다 수익률은 높고 변동성은 낮음
 - 수익률(5년 평균): KRX300 (5.1%), 코스피200 (4.5%), 코스닥150(11.9%)
 - 변동성(5년 평균): KRX300(11.8%), 코스피200(12.2%), 코스닥150(18.8%)
 - 현재 자산운용사 등의 관심이 높고, 서브지수 및 관련 파생지수(레버리지·인버스)에 대한 추가 개발 요구가 높음
 - 자산운용사와 협의하여 3월중 KRX300 ETF 상장을 완료하고,
 - 연기금 등 많은 기관투자자가 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파생상품(KRX300선물 등)도 상장 예정(1분기)
 - 코스닥종목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 유가·코스닥 통합 중소형주 지수(시가총액 2천억~1조원 종목 대상)를 추가 개발 예정(2분기)
- **(TCB보고서 발간 지원)** 애널리스트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는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TCB*의 기술분석보고서 발간을 지원(비용은 거래소·예탁원 공동 부담)

* Tech Credit Bureau : 기술신용평가기관으로 총 13만개 기업의 기술평가 실시('17.11.)

- ▶ (보고서 특징) 재무분석 위주의 증권사 리포트와 달리 기업의 기술력, 기술개발 인력, 생산시설 현황 및 TCB의 평가의견을 종합적·객관적으로 제공
- ▶ (대상기업) 코스닥 상장기업 중 기술분석이 가능한 우수 기술기업 대상
 - ☞ 분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는 기술기업 대상 우선 발간 추진(약 400~500사 예상)
- ▶ (발간주체) TCB 4개사* 중 샘플보고서 평가 등을 거쳐 단수 또는 복수 선정
 - * NICE평가정보, 이크레더블, 한국기업데이터, NICE디엔비
- ▶ (발간시기) TCB 선정 및 계약절차 등이 완료된 후 순차적으로 발간 실시
 - ☞ 코스닥기업(12월 결산)의 사업보고서 제출시점(3월말) 이후 발간 예정

- **(Scale-up 펀드 조성)** 증권 유관기관(거래소, 예탁원, 증금, 코스콤, 협회, 성장금융) 공동으로 총 3,000억원 규모의 Scale-up 펀드 조성
 - 성장금융에서 구체적인 투자대상 및 운용방안을 마련 중으로 방안이 확정되면 조기에 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
- **(상장관련 수수료 면제)** 테슬라기업, 기술기업 등 코스닥시장 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면제*(3년간)
 - * 매년 10여개 기업이 지원 대상 예상(3년간 총 5억원 내외 수수료 면제)

(4) 코스닥시장의 건전성과 신뢰성 제고

- **(부실기업 조기퇴출)** 부실기업이 시장에서 조기 퇴출될 수 있도록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요건 확대*
 - * ①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의견 변경, ②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관련 2회 연속 한정 의견,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 2회 연속 비적정 등 추가
- **(보호예수의무 강화)**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*과 상장주선인**에 대한 보호예수의무 강화
 - * 자발적 보호예수 의무 위반시 투자주의 환기종목 및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
 - ** 상장주선인이 상장심사청구 전 6월 이내 취득지분 → 1개월 또는 6개월 보호예수
- **(기업정보 신뢰성 제고)** 불성실공시 우려 법인에 대한 집중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, 기업 내부회계관리 관련 교육·컨설팅 지원

(5) 코스닥 조직 확충 및 우수인력 배치

- **(조직·인력 확충)** 코스닥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을 확충하고, 거래소내 최우수인력 전진 배치

- ① (코스닥시장위원회 지원조직 설치) 코스닥시장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
- ② (상장심사조직 확대) 진입요건 다변화 등에 따른 상장수요 확대에 대비
- ③ (공시조직 확대) 불성실공시 방지 및 공시서비스 강화 등 안정적 시장관리 도모
- ④ (내부회계관리 전담조직 신설) 신규상장사 대상 내부회계관리 교육·컨설팅 전담

2 [유가] 글로벌 선진 자본시장으로 업그레이드

(1) 시가단일가매매 개편 추진

- **(필요성)** 당일始價 결정을 위해 장개시前 1시간(08:00~09:00) 동안 시가단일가매매를 하고 있으나, 호가집적도가 낮고 예상 체결가격과 당일始價간에 가격괴리* 존재

* 개시後 5분간(08:00~08:05) 및 마감前 5분간(08:55~09:00) 호가가 집중되어 08:05~08:30 사이의 예상체결가격과 당일始價간 상당한 가격괴리 존재

- 또한, 시가단일가매매시간이 장개시前 시간외증가매매*와 중첩되어 시세 관여행위** 등 발생 우려

* 정규장前에 전일증가로만 거래가 이루어지며 1시간(07:30~08:30) 동안 운영

** 장개시前 시간외증가매매에서 체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가단일가매매에 허수성 호가를 제출하여 투자자 유인

- **(개편방안)** 시장운영의 효율성과 가격발견기능 제고를 위해 시가단일가매매 시간 단축 및 장개시前 시간외증가매매 시간 조정

- ① **시가단일가매매 : 운영시간 단축[1시간(현행) → 30분이하(개편)]*** 추진

* 해외사례(독일·영국 10분, 홍콩·싱가포르·대만 30분)를 참고하여 30분이하(08:30~09:00 또는 08:50~09:00)로 조정 검토

- ② **장개시前 시간외증가매매 : 시가단일가매매 시간과 중첩되지 않도록 시가단일가매매 개시前 30분가량 운영 예정**

현행		개편안(예시)	
	07:30 08:00 08:30 09:00		07:30 08:00(20) 08:30(50) 09:00
정규 시장	[08:00~09:00] 시가단일가(1h)	정규 시장	[08:30~09:00] 시가단일가 (10m/30m)
시간외 시장	[07:30~08:30] 시간외증가매매 (1h)	시간외 시장	[08:00~08:30] 시간외증가매매 (30m)

- ⇒ 안정적 제도 시행을 위하여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, 거래소·증권사간 면밀한 연계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(3분기 시행 목표)

(2) 글로벌 경쟁우위의 선진 증시 인프라 구축

- **(시장구조 개편)** 중장기적으로 주문주도형 시장에서 딜러(시장 조성자)제도를 통합한 한국형 시장구조(Hybrid Market)로 개편 추진
- **(상장제도 개선)** 우량기업 선별기능 제고, 공모가격 합리화를 위한 코너스톤제도* 도입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정비**
 - * 공모가격으로 인수하고 보호예수를 한다는 조건으로 기관투자자에게 가격 확정 이전에 물량을 일부 배정하는 제도
 - ** 실질심사 대상 확대, 매매거래정지제도 개선 등
- **(신상품 확충)** 저금리·고령화 시대 자산관리에 적합한 다양한 증권상품(ETF, ETN)을 상장

(3)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통한 투자매력도 제고

- **(기업지배구조 개선)** Comply or Explain 방식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 추진
 - '18년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, '19년 상반기부터 시행 추진 ('18.3분기 공시규정 개정)
- **(IR 지원)** IR역량이 부족한 중소형 상장법인에 대한 IR지원 서비스* 강화
 - * IR개최 정례화, Web기반 IR서비스(IR자료, 컨퍼런스콜 등) 강화
- **(외국인 투자자 시장접근성 제고)** 해외 선진시장과 비교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불편해하는 제도·관행*을 전면 개선
 - * 시장참가자격 완화,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개선 등(법·감독규정 개정사항은 정부당국과 긴밀하게 협의)

3 [파생] 건전한 위험관리 시장으로 육성

(1) 신상품 라인업 확충 및 시장 접근성 제고

- **(라인업 확충)**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생상품 상장 및 기관 투자자 위험관리 제고를 위한 신상품* 확대

* KRX300 선물, 코스닥150 옵션, KTOP30 선물, 금리선물 추가 등

- **(시장 접근성)** 헤지전용계좌* 대상자산** · 거래방식 개선 등 투자자 진입제도 개선 추진

* 보유한 현물자산의 가격변동위험 헤지목적으로만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계좌

** 현행 개별주식 · ETF(정방향)에서 인버스 ETF 등으로 확대

(2) 위험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청산결제 인프라 확충

- **(청산결제 위험관리체계 선진화)** 국제기준(PFMI)*에 부합하도록 청산결제 제도 개선 및 결제안정성 제고**

* 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: 금융시장인프라에 관한 원칙

** 결제회원구조 다변화, 증거금 체계, Stress-Test, 공동기금 산출방식 등 개선

- **(TR 도입)** 거래정보저장소(TR)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 즉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운영조직·시스템 구축방안 등 준비*

* 금융위는 TR 도입계획을 발표('14.6월)하고, 사업자로 KPX를 선정('15.8월)한 바 있음

⇒ TR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법 통과 즉시 TR사업부(가칭) 신설

4 [시장감시]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통한 신뢰성 제고

(1)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체계 강화

- **(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가동)** 복잡·지능화되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및 AI 기반 차세대 시장감시시스템 4월 중 가동 예정
 - 빅데이터·AI 적용을 통한 행위예측적 시장감시로 패러다임 전환
 - 신종 불공정거래 조기적발 및 신속대응 가능
- **(불공정거래 적시 대응)** 복합불공정거래 가능성 높은 잠재적 불공정거래군* 특별관리 강화**
 - * 투자조합 최대주주 기업, 대주주 대량지분 변동 기업, 실체 불명확한 공시 기업 등
 - ** ①의무감시 ②지분변동 및 공시 등 상시 모니터링 ③이상거래 발견즉시 특별심리 실시
 - ※ 6.13 지방선거 대비 정치테마주에 대한 「특별점검반」 운영 등 대응 강화

(2) 사전예방 중심 시장감시기능 확립

- **(준법 컨설팅 강화)** 회원사 및 상장기업 대상 컨설팅(Compliance)을 강화하여 시장참가자의 준법경의의식 선진화 유도
 - 상장사 「내부자 등록시스템」 및 「내부통제 진단 Tool」 개발·배포
 - 내부통제 취약기업 중심의 On-Site 컨설팅 서비스 확대(50社→100社)
 - 감리 조치 후 현장점검 컨설팅을 통한 재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
- **(회원사 감리 실효성 제고)** 회원사에 대한 감리수행 체계 전면 개편 및 자율적인 예방활동 강화
 - 감리 영역 확대 : (現)매매관련 규정 위반 → 거래소 규정위반 전반
 - 회원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운영 자율성 확대 등

5 [신성장동력] 지속 가능 성장기반 구축

(1) 자본시장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

- **(정보사업 전문화)** KRX 정보데이터 종합센터를 구축하고, KRX 고유정보와 외부정보를 활용하여 高부가가치 정보상품* 개발
 - * 例. 거래前後 주가방향성·유동성·거래비용 등 예측을 위한 정보상품
 - 특정 이벤트에 따른 수익률·거래량 변화 등 분석을 위한 정보상품 등
- 해외 정보사업자와 공동으로 정보상품*을 개발하고, “정보상품 종합 웹포털” 구축
 - * 상장기업에 대한 재무, 기업분석 등 투자참고 정보 등을 제공하는 상품
- **(인덱스사업 활성화)** 자산운용사·연기금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는 고객맞춤형 인덱스* 개발 체제 구축
 - * ESG·스마트베타·파생전략·섹터·글로벌 지수 등
- KRX 산출지수의 벤치마크 활용, ETP 해외시장 확대 등 해외 시장진출을 확대하고 마케팅 강화

(2) 미래 新기술의 자본시장 적용 선도

- **(IT 연구개발 강화)** 미래 新기술의 자본시장 접목을 위해 혁신 기술 연구개발 전담조직 신설
 - 자본시장 IT 핵심기술 선도개발 및 기술검증 등을 통해 향후 Next Exture+(차세대 시장시스템)의 설계·구축에 반영
- **(청산시스템 개편)** 해외 CCP의 블록체인 도입사례* 등을 벤치마크하여 차세대 청산시스템 구축방안 마련
 - * 호주거래소 : 블록체인을 접목한 청산결제시스템 구축(Pilot 단계, '17.12월)
 - CME : 증거금·담보관리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계획 발표('17.12월)